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이선정¹⁾

전남대학교 가정교육과 강사 · 전남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nd Resilience

Lee, Seon Jeong¹⁾

*Lecture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mong adolescents on resilience and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The research participants were 431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Gwangju. Data were collected from self-report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0 program.

The major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resilience, and self-esteem scores were higher than the median(3.00) score.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among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emotion & sociality, education), resilience, and self-esteem. Third, self-esteem had a statistically positive moderating effect on the resilience. It signifi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emotion & sociality, education) and resilience appear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self-esteem, which means that self-esteem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resilience.

Key words: 부모역할책임의식(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회복탄력성(Resilience), 자아존중감(Self-esteem)

1) 교신저자: Lee, Seon Jeong, Yongbong-ro 77, Buk-gu, Gwangju, 500-797, The Republic of Korea
Tel: 062-530-2520, Fax: 062-530-2529, E-mail: overwhelming@hanmail.net

I. 서론

현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며, 이로 인해 개인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부적응과 문제행동을 유발한다. 여러 연구에서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학교 부적응(Kim & Kim, 2009; Woo & Park, 2009)과 연관되며, 위축행동, 신체증상, 우울 및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행동과 비행, 공격 행동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Jang, 2010; Moon, 2006; S. Park, 2012)과 깊은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는 성인으로서의 역할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과제이다(Lee, Shin, & Kim, 1998). 그러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청소년들에게서 스트레스와 관련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역경을 극복하지 못하고 개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며 여러 부적응 현상들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들은 매우 큰 역경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적응과 성장을 이룬다(Park, 2011).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취약성, 인지적 평가나 대처방식, 사회적 지지체계의 여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Ko, 2004).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과 관련한 개인의 심리적 자원인 회복탄력성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회복탄력성은 사전적으로는 심각한 삶의 국면에서 좌절하지 않고 기존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재기할 수 있는 개인의 고유한 특성을 의미한다. 또한, 어려움에서 적응적으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의미인 ‘회복’과 역경을 딛고 다시 튀어 오르는 힘을 뜻하는 저항력의 향상을 나타내는 개념인 ‘탄력성’을 합쳐 ‘곤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환경에 적응하여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Shin, Kim, & Kim, 2009).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환경으로부터 자극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잘 적응하며 학교생활에 능동적일 뿐만 아니라(Kwon, 2018), 사회적 유능성 및 문제해결능력이 높아 학교생활을 더 잘한다(Lee, 2013). 회복탄력성은 청소년 문제의 예방 및 치료, 교육적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Shin et al., 2009) 정신건강이나 주관적 안녕감 등에도 강한 영향을 미쳐(Lee

& Lee, 2015) 청소년들이 바람직하게 성장하고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돕는 요인으로 손꼽힌다(Kwon, 2018; Lee & Jo, 2005).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문제해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양하고 융통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많이 떠올리고 적용할 수 있어 스트레스나 외부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Kim & Kim, 2015). 이러한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 유전적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가정환경, 문화, 교육,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Dyer & McGuinness, 1996; J. Kim, 2011). 특히 부모 관련 변인은 청소년기 회복탄력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A. Kim, 2018).

따뜻하고 지지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인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 내며, 개인의 강점이 되는 특성들을 장려하므로 회복탄력성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Ko, 2014).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지해주고 관점을 수용해주는 공감적 정서반응을 보여주면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되어, 자기조절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Jo, 2014; Lee, 2012), 부모가 온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높게 나타난다(Yang, 2016). 그러나, 부모의 자녀에 대한 과잉간섭, 밀착통제, 투사적 과보호 등 과보호는 회복탄력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M. Kim, 2017), 부모는 청소년 자녀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이를 극복하고 회복하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부모의 영향 요인 중에서도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에 주목하였다.

부모역할책임의식은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Bang, 1986),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Han, 2016). 청소년기는 아동기와 성인기 사이의 과도기적 발달 단계로,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2차 성징이 나타나는 것과 같은 신체 및 생리적 변화를 겪게 되며 인지발달, 자아정체감 형성, 진로 고민, 사회적 역할 습득 등과 관련된 심리,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Ko, 2004) 여러 가지 적응상의 문제를 겪는 시기이므로 특히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매우 어렵게 느껴진다(Ko, 2014). 청소년

년기 자녀는 부모로부터 더 많은 자율성을 보장 받고, 부모와 동등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청소년이 바라는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수행하는 역할 사이에 충돌이 생기면서 부모는 자녀의 발달에 어떻게 관여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워 한다(Son, 2018). 부모역할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자녀에게 발생되는 결과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띠게 되는데 부모가 적절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자녀는 또래 관계에서 수용력이 높고(Park, 2005), 자녀의 학교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나(Ko, 2003) 부모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지 못할 경우 청소년들의 비행과 연관되기도 한다(Choi, 2002).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부모역할책임의식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관련된다. A. Kim(2018)에 의하면 청소년들이 부모의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높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정서적, 사회적, 교육적인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면 청소년 자녀는 역경을 맞닥뜨렸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게 된다고 하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부모역할책임의식을 강조하였다.

부모역할과 자녀의 특성 관련 연구는 주로 부모역할 만족도와 관련하여 이루어져 왔고(Im, 2004; Lee, 2006; No, 2011; W. Park, 2012)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살펴본 연구는 A. Kim(2018), Bang(1986), Han(2016), Kim(2005)에 그치고 있다.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청소년 자녀의 특성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는 A. Kim(2018)과 Han(2016)의 연구에 머물러 있으며,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본 A. Kim(2018)의 연구에서는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단일요인만을 살펴보았다는데 한계점이 있다.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과 관련된 보호요인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 자아존중감이며(Hwang & Chung, 2012; Yoon & Choi, 2011),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인 존재로 평가하는 개념이다. 이전 연구에서 높은 회복탄력성을 지닌 사람의 자아존중감은 높다고 하였고(Klohn, 1996),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심리적 발달에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의 긍정적인 발달을 촉진하고 부정적인 경험에 의한 결과의 영향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Owens, Stryker, & Goodman, 2001, as cited in H. Kim,

2018, p.17)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정도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조절효과가 있을 것으로 파악된다. Kim(2010)도 청소년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상황이 부정적인 정서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이 이를 완충해주는 대처자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A. Kim(2018), Ko(2014), Lee(2016), Lee와 Kim(2006), Lim(2016), S. Park(2012)의 연구에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임이 검증되었고,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여러 연구들(C. Kim, 2014; Hwang & Chung, 2012; Yoon & Choi, 2011)을 토대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를 가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정서 및 사회성과 교육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을 조절변인으로 설정하여, 회복탄력성에 부모역할책임의식이 미치는 영향과 함께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역할책임의식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증진을 위한 학교 현장에서의 개입 방안과 효과적인 부모교육의 실천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를 이루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목표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 2-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 2-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1.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란 일반적으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에 직면했을 때 유연하게 대처하여 스스로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을 일컫는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은 추상적이며 복잡적이어서 학자들마다 다르게 정의되기도 하고, 그 개념의 범위가 넓고 다양한 용어들과 혼용되어 ‘자아탄력성’, ‘능력’, ‘긍정적 적응’ 등의 단어들과 유사하게 사용되기도 한다(Kang, 2012).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양한 스트레스원을 제공하고 현대인들은 이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 생활사건이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부적응 상태에 빠지기도 하나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남들보다 빠르게 효과적으로 평소 상태로 돌아온다(Kim & Min, 2011). 회복탄력성은 어느 정도는 유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역동적 과정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환경요인과 교육 문화 개인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결정되기도 한다(Dyer & McGuinness, 1996). 회복탄력성은 특정 장애에 대한 유전적인 요인, 다루기 힘든 기질과 같은 개인적인 특성, 생활사건이나 빈곤, 역경과 같은 환경적인 요인 등과 같은 위험요인,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개인적 측면의 자아존중감, 책임감, 내적통제, 대인관계 기술, 높은 인지능력, 안정된 기질 등과 가족적 측면의 가족의 지지, 부모와의 안정적인 관계, 민주적 양육태도,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 등과 같은 보호요인과 관련된다(Ko, 2014).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나 학업성취도, 주관적 안녕감 등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Anthony, 1987, as cited in Shin et al., 2009, p.106) 청소년들이 긍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핵심적 능력과 태도를 밝혀주는데 유용한 개념이다(Lee & Jo, 2005).

2. 부모역할책임의식

부모역할이란 부부가 자녀를 출산한 순간부터 부모라는 사회적 위치에 의해 자녀를 양육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기대되어지는 특징적 행동(Hyun, 1994)이며, 가족 체계 속에서 부모라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진 행동규준이자, 부모에게 주어지는 권리와 의무이다(Ko, 2014). 부모역할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양육태도나 양육행동 등으로 총칭되기도 한다(Hyon, 2004). 현대는 가족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맞벌이 가족이 증가됨에 따라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모역할 부담이 불분명해지고 있다. 또한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만이 부모의 주된 역할이었던 전통사회의 부모와는 질적으로 현저하게 다른 새로운 부모됨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Park, Kim, Seo, Yun, Lee, & Cho, 2012) 현대사회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지도하는데 다양한 능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녀의 안녕을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부모역할책임의식이란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를 말한다(Bang, 1986). Gilbert와 Hanson(1983)은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교육적인 면과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는 일, 가족 및 사회와 자녀와의 관계를 돌보아 주는 일에 관한 13가지 영역을 제시하면서 이들 영역을 자녀 양육에 따른 부모의 역할로서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모역할에 대한 책임의식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자녀의 인지발달을 도와주는 것, 정서적 안정감을 심어주는 것, 사회성 발달을 도와주는 것, 규범을 가르치고 사회적 가치관을 길러 주는 것, 신체적인 발달을 돕는 것, 위생 상태를 돌보아 주는 것, 생존 능력을 길러주는 것, 건강을 관리하는 것, 물리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것, 정서적인 욕구를 다루는 것, 보호 관리를 하는 것, 자녀에게 사회생활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는 것, 가족공동체 의식과 가풍을 심어주는 것 등이다(as cited in Bang, 1986, pp. 14-17). Han(2016)은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청소년기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교육에 대해 부모가 그 역할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느냐로 정의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부모역할책임의식의 하위요인으로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교육 등 두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였다.

3.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는 자아존중감을 자신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서 자아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태도라고 정의한다. 즉 자아존중감은 자기존중의 정도와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높다는 것은 자신을 수용, 존중하고 자신을 좋아하며 스스로를 가치 있는 인간으로 느끼는 것을 말한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낙천적이고 실패에 대한 대처 능력이 높으며 자신이 가진 약점과 상관없이 스스로를 존중한다(Lee, 2017).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의 형성은 발달단계상 중요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J. Kim, 2017). 많은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B. Kim, 2014; Lee, 2009), 학업성취(Moon, 2016; Park, 2010), 성취동기(Hyun, 2013; Lee, 2005), 문제행동(Lim, 2015; S. Kim, 2012), 미래기대 및 희망적 사고(J. Kim, 2011; O. Kim, 2012) 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된다. 또한, 자아존중감 수준에 따라서 개인의 자아의지, 성취동기, 목표의 계획 및 달성, 자아실현, 사회적 적응행동 등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난다(Jun, 2006).

4.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의 관계

부모가 부모역할의 중요성을 어떻게 인식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진다(Han, 2016). S. Park(2012)은 부모가 자녀의 정서를 지지해주고 관심을 수용해 주며 공감적 정서반응을 보일 때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된다고 하였다. 친밀하고 지지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자녀의 회복탄력성을 높인다는 Ko(2014)의 연구, 부모의 공감능력과 아동의 회복탄력성은 깊은 관계가 있어서 긍정적인 공감을 잘하는 부모의 자녀는 회복탄력성이 높고 이것은 학교 적응에 있어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Lee(2016)의 연구 등을 통해 부모가 바람직한 부모역할을 수행하면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J. Kim(2011)은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성을 높이기

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 이것을 바탕으로 안정된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회복탄력성의 기본이라고 하였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정서표현성도 높이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자아존중감도 높여 주어야 한다(Lim, 2016). Klohnen(1996)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자아상과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동일수록 자아탄력성이 높다고 밝혔고 Lee와 Kim(2006)도 자아존중감이 자아탄력성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갖게 된다면 위험사건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된다고 하였다. H. Kim(2012), Yeo와 Park(2013)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된다. Lee(2019)도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자아존중감이 높은 학생일수록 부정적 환경이나 상황에 대한 스스로의 회복력이 높다고 하였다.

부모가 긍정적으로 자녀를 대할 때 자녀의 자아존중감은 높아지고(Kim, 2000; Shin, 2010), 부모가 수용적이고 애정적이며,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거부적이거나 부정적이면 자아존중감이 떨어져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에 따라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달라질 수 있다(Shin, 2010). 자아존중감이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밝힌 연구는 찾아볼 수 없으나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중요한 변인임이 검증되었고, 여러 연구(C. Kim, 2014; Hwang & Chung, 2012; Kim & Kim, 2018; Yoon & Choi, 2011)에서 자아존중감이 부모-자녀 관계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사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 수준이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소재 4개의 중학교 1학년과 3학년 학생 431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이용하여 2017년 11월 7일부터 11월 11일까지 실시하였다. 학년에 따른 차이가 회복탄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고자 중학교 1학년과 3학년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학생 47.6%, 여학생 52.4%이었고, 학년은 1학년 51.5%, 3학년 48.5%였으며, 생활수준은 상 12.8%, 중상 31.6%, 중 48.0%, 중하 6.7%, 하 .9%이었다.

2. 조사 도구

1)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사회인구학적 요인 중 선행연구들(Han, 2016; Kang, 2012)에서 종속변수인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변수로 검증된 학년(3학년:1, 1학년:0)과 생활수준(상, 중상:1, 중, 중하, 하:0)으로 설정하였다.

2) 부모역할책임의식

부모역할책임의식(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은 Gilbert와 Hanson(1983)의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Scales을 토대로 Bang(1986)이 청소년자

녀 부모의 역할에 관한 책임의식을 측정할 수 있는 12문항으로 구성하고, 이를 Han(2016)이 요인분석을 통해 적합성을 확인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 및 사회성에 관한 8문항과 교육에 관한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서 및 사회성’은 자녀에 대한 대인관계, 책임감, 존중 등의 정서와 사회적인 관심을 말하며, ‘교육’은 자녀의 진로에 대한 관심과 교육적 활동을 제공 하는 등의 교육적 관심을 말한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역할책임의식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정서 및 사회성이 .91, 교육이 .77이었다.

3)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Shin 등(2009)의 회복탄력성 검사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원인분석력), 긍정성(생활만족도, 감사하기, 낙관성), 사회성(관계성, 의사소통, 공감능력)에 관한 내용으로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4)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가 개발한 10문항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정도를 묻는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점수화 하였으며, 각 문항은 5점 Likert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는 .91이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 Variable | Category | N(%) | Variable | Category | N(%) |
|----------|----------|-----------|-----------------|-----------|-----------|
| Gender | Male | 205(47.6) | Economic Status | Upper | 55(12.8) |
| | Female | 226(52.4) | | Mid-Upper | 136(31.6) |
| Grade | 1'st | 222(51.5) | | Middle | 207(48.0) |
| | 3'rd | 209(48.5) | | Mid-Lower | 29(6.7) |
| | | | | Lower | 4(.9) |

3.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 SPSS/WIN 23.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빈도, 퍼센트,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고,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역할책임의식,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부모역할책임의식, 회복탄력성, 자아존중감 상관성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 계수를 구하였으며, 청소년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에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조절효과 검증 시 예측변인과 조절변인이 연속 변인일 경우 원점수를 중심화하는 것이 다중공선성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각 변인들을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 후 독립변인과 상호작용항을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조절변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청소년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은 정서 및 사회성이 4.00, 교육이 3.62로 중간값(3.00) 보다 높게 나타났다. 회복탄력성은 3.65, 자아존중감은 3.56로 중간값(3.00) 보다 높았다.

2.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의 상관관계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부모역할책임의식 중 정서 및 사회성($r=.57, p<.001$)과 교육($r=.50, p<.001$),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variables

| Variable | | M | SD |
|--|-------------------|------|-----|
|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 Emotion&Sociality | 4.00 | .68 |
| | Education | 3.62 | .76 |
| | Resilience | 3.65 | .49 |
| | Self-esteem | 3.56 | .69 |

Table 3. Results of correlational analysis

| |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 | Resilience |
|--|--|-----------|------------|
| | Emotion&Sociality | Education | |
|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 Emotion&Sociality | | |
| | Education | | |
| | | | |
| | Resilience | | |
| | | | |
| | Self-esteem | | |
| | | | |

*** $p<.001$

자아존중감($r=.66, p<.001$)이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3.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 독립변수, 조절변수를 투입하여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종속변수인 회복탄력성, 통제변수인 학년과 생활수준, 독립변수인 부모역할책임의식을 투입한 모델

1과 모델 1에 조절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투입한 모델 2,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을 위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와 조절변수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평균중심화(mean centering)를 적용하여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모든 변인에서 VIF 값이 10이하, 공차한계 값이 1을 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Table 4.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emotion&sociality) and resilience

| Variable | Model 1 | | | Model 2 | | | Model 3 | | | Tolerance | VIF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 |
| Control Variable | Grade | .03 | .03 | .72 | .05 | .06 | 1.47 | .06 | .06 | 1.69 | .99 | 1.01 |
| | Economic Status | .09 | .09 | 2.26* | .04 | .04 | 1.07 | .04 | .04 | 1.01 | .91 | 1.10 |
| Independant Variable |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 (Emotion&Sociality) (A) | .39 | .55 | 13.21*** | .21 | .30 | 7.33*** | .23 | .31 | 7.78*** | .69 | 1.45 |
| | Self-Esteem (C) | | | | .35 | .50 | 12.28*** | .34 | .48 | 11.89*** | .70 | 1.44 |
| Interaction | A*C | | | | | | .13 | .13 | 3.79*** | .98 | 1.02 | |
| | R^2 | .33 | | | .50 | | | .52 | | | | |
| | ΔR^2 | | | | .17*** | | | .02*** | | | | |
| | F | 70.66*** | | | 109.31*** | | | 93.05*** | | | | |

* $p<.05$ *** $p<.001$

Dummy variables: Grade(1:3'rd, 0:1'st), Economic Status(1:Upper, Mid-Upper, 0:Middle, Mid-Lower, Lower)

Table 5.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on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education) and resilience

| Variable | Model 1 | | | Model 2 | | | Model 3 | | | Tolerance | VIF | |
|----------------------|---|----------|-----|----------|-----------|-----|----------|----------|--------|-----------|------|------|
| | B | β | t | B | β | t | B | β | t | | | |
| Control Variable | Grade | .02 | .02 | .48 | .05 | .05 | 1.43 | .05 | .05 | 1.51 | .99 | 1.01 |
| | Economic Status | .14 | .15 | 3.48*** | .05 | .06 | 1.56 | .06 | .06 | 1.65 | .92 | 1.08 |
| Independant Variable |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y(Education) (B) | .30 | .47 | 11.14*** | .17 | .27 | 7.10*** | .17 | .26 | 6.88*** | .81 | 1.23 |
| | Self-Esteem (C) | | | | .38 | .54 | 14.12*** | .38 | .54 | 14.19*** | .80 | 1.26 |
| Interaction | B*C | | | | | | .09 | .10 | 3.07** | .99 | 1.01 | |
| | R^2 | .27 | | | .50 | | | .51 | | | | |
| | ΔR^2 | | | | .23*** | | | .01** | | | | |
| | F | 52.81*** | | | 103.83*** | | | 89.85*** | | | | |

** $p<.01$ *** $p<.001$

Dummy variables: Grade(1:3'rd, 0:1'st), Economic Status(1:Upper, Mid-Upper, 0:Middle, Mid-Lower, Lower)

33%이었고 회귀식 모형은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70.66, p<.001$). 통제변수 중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beta=.09, p<.05$) 회복탄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독립변수인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55, p<.001$).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0%로 모델 1에 비해 설명력이 17%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9.31, p<.001$).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beta=.30, p<.001$)과 자아존중감($\beta=.50,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델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2%로 모델 2에 비해 2%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93.05, p<.001$).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beta=.31, p<.001$)과 자아존중감($\beta=.48,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항($\beta=.13, p<.001$)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정서 및 사회성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2)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보면, 통제변수와 독립변수만을 투입한 모델 1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F=52.81, p<.001$). 통제변수 중 생활수준이 높은 경우($\beta=.15, p<.001$) 회복탄력성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독립변수인 교육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beta=.47, p<.001$). 조절변수를 추가로 투입한 모델 2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0%로 모델 1에 비해 23%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103.83, p<.001$).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beta=.27, p<.001$)과 자아존중감($\beta=.54,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을 추가로 투입한 모델 3에서 종속변수에 대한 설명력은 51%

로 모델 2에 비해 1% 유의한 증가를 보였고 회귀식 모형도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F=89.85, p<.001$).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beta=.26, p<.001$)과 자아존중감($\beta=.54, p<.001$)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쳤으며, 상호작용항($\beta=.10, p<.01$)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조절효과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 관련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V. 논의 및 결론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은 중간값(3.00)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역할책임의식 중 정서 및 사회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신의 부모가 중간보다 높은 수준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지니고 있고 특히 정서를 지원하고 사회성을 기르는 것에 더 높은 수준의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한 Han(2016)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과거에 비해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점차 사회로 이관되면서 자녀들이 느끼는 부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부분은 정서 및 사회성 역할에 비해 낮게 인식되는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으며, 가정의 기능의 변화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교육적 기능은 감소하고 정서적 기능이 강조되고 있는 부분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Park과 Holloway(2013)도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의 교육적 관여는 줄어든다고 하였는데, 부모가 청소년 자녀의 교육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배경에 대해 자녀가 성장하면서 인지 수준이 향상되어 스스로 과제를 수행하고 학업 성취를 위한 자율적 노력이 가능하며, 교과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자녀의 진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제공하는 부모의 역할은 과도할 경우 청소년 자녀의 자율성을 침해하여 낮은 자아존중감을 갖게 하거나 정서적, 행동적으로 부적응으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Locke, Campbell, & Kavanagh, 2012) 주의해야 한다.

하지만, 부모의 교육 관련 부모역할은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관여하고 격려하며, 학교 적응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지기반이 되어준다는 측면에서 학교 적응과 학업 성취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Hwang, 2007; Mun & Kim, 2003) 사회화 측면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 익혀야 할 태도와 가치를 학습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모역할로(Wang & Sheikh-Khalil, 2014) 인정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중간값 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나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정서적 불안과 자존감 혼란, 그에 따른 심한 스트레스와 부적응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회복탄력성의 발전 및 변화 가능성은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한 점진적 과정으로 모델링이나 교육을 통해 충분히 성장시킬 수 있는 능력(Hong, 2006)이므로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을 가지고 역량을 키워주는 시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고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하며 성취에 대한 긍정적인 자세를 보임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Jo & Cha, 2013; Yang, 2016). 학교에서는 가정과 수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생활역량을 길러 생활 속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어려움이나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자 하는 가정과 교육의 교과 성격 및 목적은 스트레스나 문제 상황을 극복하고 주어진 환경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 능력으로 해석되는 회복탄력성을 기르는데 적합한 과목이다(Choi, Kim, Lee, Lee, Lim, & Park, 2018). 가정과 수업을 통한 청소년의 효과적인 회복탄력성 단련을 위해서는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교수 학습자료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리라 본다.

둘째,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 및 사회성, 교육에 관한 부모역할책임의식을 높게 인식할수록 회복탄력성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회복탄력성도 높아졌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정서적 지지가 자녀의 탄력성과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한 Lee(2015)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며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Lee(2019), Yeo와

Park(2013) 등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가 자신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으며 친밀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고 느낄 때 탄력성이 높아지므로, 자녀에게 따뜻한 관심이나 격려 등 안정적이고 정서적인 지원을 해주면 자녀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완충할 수 있다는 Lee(2015)의 견해처럼 부모의 바람직한 역할은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Lee(2019)는 자아존중감이 학생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주며, 둘은 상호 밀접한 관계임을 밝히면서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불유쾌한 상황과 스스로의 감정을 분리하여 보다 합리적인 사고 및 감정 해소가 가능하도록 교육하며 신뢰와 인정의 지원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과제는 많은 시련과 좌절을 견뎌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부모와 학교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셋째,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에 대한 분석을 위해 통제변수(학년, 생활수준), 독립변수(부모역할책임의식), 조절변수(자아존중감),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을 단계적으로 투입하여 회귀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은 정적으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고, 자아존중감도 정적 관계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었다.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과 자아존중감의 상호작용항, 부모역할책임의식(교육)과 자아존중감 상호작용항 또한 회복탄력성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났으며, 각각 정(+)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이는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의미하며, 자아존중감은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연구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해 보면, 방임 및 학대가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Kim과 Kim(2018)의 연구와 상반된 결과이다. 반면에 Yoon과 Choi(2011)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애착과 안녕감

간 관계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C. Kim(2014)의 연구에서도 가족기능과 청소년 분노반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재효과가 확인되었으며, Hwang과 Chung(2012)도 부모의 성취압력과 고등학생의 시험불안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자아존중감이 긍정적인 요인은 촉진하고, 부정적인 요인은 완충해주는 대처자원으로 작동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Kim, 2010). 이처럼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가 나타난 연구들에 의해 스트레스를 이겨내고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게 돕는 심리적·정서적 보호 요인(Lee & Chun, 2012)으로서의 자아존중감의 기능이 밝혀진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과의 관계에서 재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은 자녀의 회복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에 좌절하지 않고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책임을 다해야 함이 밝혀졌다. 즉, 부모가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해 인식하고 수행할 때 청소년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높아질 수 있으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바람직한 부모상을 갖추고 책임있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자녀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과 교육적 성장을 위한 부모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는 시대가 변하면서 부모에게 요구되는 부모역할 또한 달라지고 있으며 변화된 환경에 맞추어 발전된 부모교육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급격한 사회변화에 따라 생각하는 것도, 노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이전과 다른 방식을 보이는 아이들을 이해하고, 이에 적절한 부모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보급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 체계화된 부모역할 훈련 교육을 통해 자녀교육에 관한 견해를 바로 세우고, 부모의 역할과 자녀의 성장 발달 및 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높임으로써 부모로서 적절한 지식 및 능력을 갖추게 된다면 효과적인 부모역할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 자신의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기관을 통해서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부모교육은 여전히 어머니 위주로 시행되고 있으므로 부와 모 모두가 참여 가능하거나 접근하기 쉬운 방

향으로 부모교육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자아존중감이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조절(촉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이 스트레스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상황을 이루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내적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이 밝혀졌다. 자아존중감은 어려서부터 주변의 가족, 친구, 교사 등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므로 다양한 환경 속 자아존중감 강화를 위한 계획이 구상되어야 한다. 우선, 가정환경의 경우 가족 내 부모-자녀 관계는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성숙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모가 스스로 전인적이고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자녀를 수용하고, 칭찬과 인정을 통하여 지도하는 바람직한 가정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는 가정 교과 활동 시간을 활용한 자아존중감 향상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가정과의 경우 교과목의 성격이 자아존중감과 회복탄력성을 함께 다루기에 매우 적합한 교과이므로 가정과 수업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015 개정 '기술·가정' 교과 교육과정을 보면(Ministry of Education, 2015), 기술·가정 교과목의 성격을 '생활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자립적인 삶의 의미를 깨달아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가정생활 분야에서는 학습자가 자신의 발달을 이해하여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건강한 가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족구성원 간의 배려와 돌봄을 배우도록 하며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융합하는 역량을 기르고, 이를 토대로 자기 관리 및 자립적 생활 태도를 내면화하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특히 중학교 기술·가정의 '인간발달과 가족'의 성취기준에는 청소년기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 특징을 이해하여 자신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자기 자신과 타인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길러, 자아존중감을 향상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도록 한다고 제시되어 있어 가정과 교과를 통해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과 같은 기본적인 내적 소양을 함양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가정과 수업을 통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젝트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 외에도 가정 교과 운

영 과정에서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리라 본다. 더불어 학교현장에서 교과 활동 시간뿐만 아니라 범교과 차원에서 회복탄력성 축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천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어 자아존중감의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4개의 중학교를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기 때문에 연구대상자 표본 설정에 한계가 있어 연구결과를 전체 청소년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 또한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청소년 자녀가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 만으로 한정시켜 연구를 진행하여 다양한 요인을 탐색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측정 대상 지역을 보다 광범위하게 포함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회복탄력성의 영향 요인과 특성을 학교 급별로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영향 변인을 학교 환경, 사회적 환경 등 여러 변인으로 확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을 청소년 자녀가 평가하도록 하였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가 인식한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녀가 인식한 부모역할책임의식을 함께 조사하여 부모-자녀 간 인식의 차이를 측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 Bang, E. R. (1986).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Differences between mothers and fath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R., Kim, E.-J., Lee, S.-Y., Lee, G.-S., Lim, S.-J., & Park, M.-J. (2018). An analysis of High School Technology · Home Economics textbooks' activities to improve the resilience of youth.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0(4), 37-55.
doi:10.19031/jkheea.2018.12.30.4.37
- Choi, Y. S. (2002). *A study on juvenile delinquency and parental ro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Seoul, Seoul, Korea.
- Dyer, J. G., & McGuinness, T. M. (1996). Resilience: Analysis of the concept. *Archives of Psychiatric Nursing*, 10(5), 276-282.
- Han, B. R. (2016). *The effect of adolescents' perception of ego resilience,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on school adjustment: Focusing on mediated effect of family streng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seo University, ChungNam, Korea.
- Hong, E. S. (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2), 45-67.
- Hwang, S. M., & Chung, H. H. (2012). The moderating effects of academic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parental achievement pressure and high school students' test anxiet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1-20.
- Hwang, Y. Y. (2007). *The relationships among parents' learning involvement types and social support and adaptation to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ChungBuk, Korea.
- Hyon, M. S. (2004). *Study on parental intelligence scale development and validity in parent education/counseling at childhood*.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yun, J. M.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family strength and achievement motivation perceived by 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Hyun, O. K. (1994).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and relation variab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kuk University, Seoul, Korea.
- Im, H. A. (2004). *The effect of conjugal conflicts and parental satisfaction on the aggression and prosociability of young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E. O. (2010). *Effects of marital conflict and stress on emotional/behavioral problems with resilience as a mediator in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Jo, H. I., & Cha, J. Y. (2013).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suicide ideation: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y and social suppor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11), 129-149.
- Jo, J. I. (2014). *The mediating effects of mindfulnes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dolescent empathy skills and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nkook University, Seoul, Korea.
- Jun, Y.-M. (2006). *The differences of self-esteem and learning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girls student according to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ang, N. W. (2012). *The correlation among resilience, stressors, and stress coping styles in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children*. Unpublished master's thesis, Inje University, GyeongNam, Korea.
- Kim, A. K. (2018). *The adolescent's perception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and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B. M. (2005). *The social support for the grandparents from kinship cares and the recognition of responsibility in parental ro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B.-M. (2014). *The effects of daily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in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C. S. (2014). The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family functions and anger responses in adolesc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3), 385-407.
- Kim, H. T. (2012). Factors influencing resilience of group home children: Using self-esteem as mediat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hild Welfare*, 38, 211-234.
- Kim, H. Y. (2018).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eer attachment and smartphone addiction tend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E. (2017).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for adolescents on their human rights consciousness: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J. H. (2000). *The relationship among high school pupil's perception of parental attitude, self-esteem and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Kim, J. W. (2011). *Resilience*. Goyang: Wisdomhouse.
- Kim, J.-K. (2011). *Research about adolescent's expectation of future: Focused on self-esteem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 Kim, M. J. (2017). *The effect of parents' overprotection on the high school students' resilience: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covert narcissism*.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O. S. (2012). *A study on hopeful thinking determinants of adolesc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yonggi University, GyeongGi, Korea.
- Kim, S. A., & Min, K. H. (2011). Comparison of three resilience scales and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and emotional characteristics. *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25(2), 223-243.
- Kim, S. H. (2012).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real and cyber delinquenc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Kim, S. H., & Kim, H. M. (2018). Self-respect moderating effects on adolescents with emotional problems due to neglect and abusive experience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8(2), 26-36.
doi:10.5392/JKCA. 2018.18.02.026
- Kim, S. J., & Kim, S. H. (2015). The moderating effects of ego-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2(2), 49-70.
- Kim, Y. H. (2010).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personal anxiety and negative affec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7(7), 1-20.
- Kim, Y. J., & Kim, Y. H. (2009). Effects of daily stress and ego-resilience on maladjustment in school-aged children. *Journal of Family Relations*, 14(2), 123-142.
- Klohn, E. C. (1996). Conceptual analysis and measurement of the construct of ego-resili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5), 1067-1079.
- Ko, H. J. (200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 attitude and first grader's adjustment in school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of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Korea.
- Ko, H. S. (2014). *Effect of the parental relationship on resilience and happiness of the higher grades in elementary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hee University, Seoul, Korea.
- Ko, K. H. (2004).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tress management program for yout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Donga University, Busan, Korea.
- Kwon, Y.-J. (2018).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and adaptation to school life: Mediating effect of teacher's autonomy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nam University, GyeongNam, Korea.
- Lee, A.-Y. & Kim, J.-Y. (2006). Relationships among meaning of life, body image, self-esteem, altruism, and resilience in institutionalized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7(2), 159-183.
- Lee, H. G. (2012). *The effects of late adolescent's perceived parental empathy on self-regulation: Mediating of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R. (2019). *A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self-esteem, schoolteacher's resilience and student's resilience: Multi-level analy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H. R., & Lee Y. S.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ttachment, peer attachment and resilience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academic high school students. *Studies on Korean Youth*, 23(2), 467-486.
- Lee, H., & Jo, H.-I. (2005). A study for development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n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6(2), 161-206.
- Lee, J. S. (2006).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in relation to their childhood experiences, satisfaction as parents and their spousal support on parent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K. J., Shin, H. S., & Kim, H. S. (1998). A study of social support, daily hassles and maladjustment perceived by adolescents.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6(4), 29-39.
- Lee, M.-S. (2017). *A study on teaching methods of using photography to improve self-esteem on art education for the sixth 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O. R. (2016).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empathy and school adjustment perceiv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 Lee, S. H. (2009). *The study on correlation of self-esteem, studies achievement,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of the low-income families' children and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j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S. H., & Chun, J. S. (2012). The influence of stress on suicidal ideation among male and female adolescent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Ewha Journal of Social Sciences*, 28, 173-202.
- Lee, S.-S. (2013). *A study on the effects of middle school students' resilience on their school adjustment: Focused on adjustment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Chosun University, Gwangju, Korea.
- Lee, W.-K. (2005). *Correlates of adolescent achievement motive: Socioeconomic status, maternal expectation and emotional support, and a adolescent self-esteem.*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M. (2015). *The moderating effects of parental empathy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stress and agg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J. (2015).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support and friendship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 Lim, J.-Y. (2015).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self-esteem on youth suicidal Idea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GyeongNam, Korea.
- Lim, S. M. (2016). *정서표현성과 회복탄력성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o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 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 Locke, J. Y., Campbell, M. A., & Kavanagh, D. (2012). Can a parent do too much for their child? An examination by parenting professionals of the concept of over parenting. *Journal of Psychologists and Counselors in Schools, 22*(2), 249-265.
- Ministry of Education. (2015).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A general introduction on the curriculum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Sejong: Author.
- Moon, K.-S. (2006). The effect of academic stress on suicidal impulse in adolescence: Mediating roles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7*(5), 143-157.
- Moon, M.-H. (2016). *The mediated effect of self-esteem on the risk factors that affect to the perceived academic achievement of adolesc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Mun, E. S., & Kim, C. H. (2003). The relationships between Parents' perceptions of parental involvement and the academic motivation and achievement of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7*(2), 271-288.
- No, J. Y. (2011). *The effects of mother's parenting stress and parental satisfaction on children's attachment form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G. J., Kim, Y. J., Seo, M. W., Yun, M. J., Lee, J. S., & Cho, K. O. (2012). *영유아기 부모역할을 위한 부모교육: [Parent education for parental roles of infancy and childhood]*. Paju: Yangseowon.
- Park, K. E. (2010). *A study on self-esteem, learning type, achievement goal, and academic achievement in adolesc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 Park, S. H. (2005). *A study of parental role affect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M. (2011). *The effects of the mindfulness-based cognitive behavioral group therapy on anxiety and ego-resilience of the youth of low-income famil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soong University, Busan, Korea.
- Park, S. W. (2012). *Relations among daily stress, ego resilience, hope and social support affecting adolescents' problem behavior*.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 Holloway, S. D. (2013). No parent left behind: Predicting parental involvement in adolescents' education within a sociodemographically diverse popul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106*(2), 105-119.
- Park, W. Y. (2012).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satisfaction, family strengths and parent-child interaction, child's ego-resili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ang University, Seoul, Korea.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ce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hin, M. S. (2010). *Effects of parent's-rearing attitudes on a communication and a self-esteem of their children: Focus on adolescents(middle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sian United Theological University, Gyeonggi, Korea.
- Shin, W. Y., Kim, M. G., & Kim, J. H.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Studies on Korean Youth, 20*(4), 105-131.
- Son, S. O. (2018). *The effects of parenting behaviors on adolescents' positive and negative develop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 Wang, M. T., & Sheikh-Khalil, S. (2014). Does parental involvement matter for student achievement and mental health in high school?. *Child Development, 85*(2), 610-625.
- Woo, S. Y., & Park, K. J. (2009). Self-control and sense of humor as moderating factors for negative effects of daily hassles on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30*(2), 113-127.
- Yang, H. M. (2016). *The effects of individual characteristics and family characteristics on the resilience of adolesc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eimyung University, Daegu, Korea.
- Yeo, J. Y., & Park, T. Y. (2013). A study of adolescent's suicidal ideation: The mediation effect of resilience and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8), 121-145.

Yoon, M. S., & Choi, J. M. (2011). The influence of parent attachment on psychological well-being in early adolescence: Moderate

effect of self-esteem.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3(2), 55-78.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첫째,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자아존중감 및 회복탄력성은 중간값(3.00) 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부모역할책임의식 중 정서 및 사회성에 대한 인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 자아존중감, 회복탄력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역할책임의식과 자아존중감은 회복탄력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은 부모의 부모역할책임의식(정서 및 사회성, 교육)이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각각 정(+)적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접수일자: 2019년 02월 07일, 논문심사일자: 2019년 02월 0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06월 30일